



플·꽃·시·인 >> 나태주

‘꽃시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은 50년동안 독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많은 시를 발표해 왔다. 문학관앞에 설치된 자전거 조형물에 ‘꽃’ 시가 새겨져 있다.

“시인은 아픈 세상 위로해주는 감정의 서비스맨”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74) 시인의 시 ‘꽃·1’은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시와 함께 해 온 그를 ‘꽃시인’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는 “시인은 아픈 세상을 위로해주는 감정의 서비스맨”이라고 말한다. 충남 공주시 반죽동 ‘공주 꽃시인문학관’에서 내년 등단 50년을 맞은 나 시인을 만났다.

◇2014년 ‘공주 꽃시인문학관’ 개관= “꽃에 피는 모든 꽃은 다 꽃시인이요. 또 하나 함유된 의미를 따져 보면 화려하지 않은 것, 작은 것, 버려졌거나 가꾸지 않는 것...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이너(minor) 중의 최하의 마이너를 꽃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태주(74) 시인은 공주 꽃시인문학관 비탈길을 걸어 올라오며 이리저리한 여러 꽃들과 눈을 맞춘다. 충충꽃과 구절초, 천일홍, 클레마티스 등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꽃과 나무만이 문학관 화단의 주인공은 아니다. 이름모를 작은 풀들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간혹 문학관을 찾아온 독자들이 이를 잡초인줄 알고 일부러 뽑아버려 시인을 놀라게 한다.

문학관은 충남 공주시 반죽동 나지막한 산허리에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에 지어져 일본군 헌병대장 관사로 사용됐던 일본식 단층 목조건물이다. 해방되고 나서 개인집으로 오래 쓰다가 공주시에서 매입해 복원공사를 한 후 2014년 10월에 ‘공주 꽃시인문학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내부에 들어서면 시인이 직접 그려 만든 12폭 꽃시인 벽화, 오르간이 눈에 들어온다. 마침 40대 여성 두 명이 문학관을 찾았다. 애독자인을 밝힌 그들은 시인에게 가지고 왔던 시집을 내밀었다. 시인은 시 ‘꽃·1’ 전문을 꼼꼼하게 적은 후 시인을 했다. 그리고 시인은 풍금(오르간) 앞에 앉아 악보를 펼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독자 두 사람도 시인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자세히 보아야 예

‘꽃·1’은 초등학교 교장때 학생들과 꽃시인 그리기 공부한 경험 담겨 선생 아니었으면 못 썼을 것 교직은 ‘직업’이고 시 쓰기는 ‘본업’

2014년 ‘공주 꽃시인문학관’ 개관을 소월시문학상 대상 선정되기까지 한 해 강연만 200여 차례 다녀 50년간 독자 마음 치유 시 많이 써

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43년간 초등교육과 시 창작 병행=나 시인은 공주사범학교(공주교육대 전신)를 졸업하고 1964년부터 2007년까지 43년 3개월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 섰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대수 아래서’라는 작품으로 등단한 후 교직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쳤다. 교직은 ‘직업’이고 시 쓰는 일은 ‘본업’이었다.

시 ‘꽃·1’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2년에 학생들과 꽃시인 그리기 공부를 한 경험을 오롯이 담은 작품이다. 학생들이 하도 대충대충 꽃시인 그리기에 그가 말했다.

“애들아! 꽃시인 그리 때는 꽃시인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꽃시인이라고 예쁜 거란다. 한 개의 꽃시인을 오래 들여다보아야 사랑스런 거란다. 너희들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단다.”

교장실로 돌아온 나 시인은 아이들에게 말한 대



공주 꽃시인문학관을 찾은 독자와 풍금(오르간)을 연주하며 ‘꽃·1’을 부르고 있는 나 시인.

로 간결하게 정리해 ‘꽃·1’이란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그래서 그는 이 시를 ‘꽃시인에서 빌려온 시’, ‘나하고 같이 꽃시인 그리기 공부를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물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초등학교 선생 아니었으면 못 썼어요. ‘꽃·1’ 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바라보거나 사는 세계가 자연친화적이고 어린 세계이고 그림으로써 보편성을 가질 수 있었고, 둘째는 말하는 어법이 문어체(文語體)가 아니고 구어체(口語體), 입말체라는 게 중요해요.”

‘꽃·1’은 속도 지향적·성과제일주의로 치닫는 한국사회에 꽃시인같이 ‘소소하고 보잘 것 없지만’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두자고 말한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을 장식한 많은 글귀 가운데 ‘꽃·1’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후 그는 ‘꽃시인’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최근 시인은 도서출판 문학상사자가 제정한 ‘제30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지난 2월에 펴낸 신작 시집 ‘마음이 살짝 기운

다’이다. 시상식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시는 세상에 보내는 시인의 러브레터”=시인은 1945년 3월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15살에 연애편지를 쓰면서 시인을 꿈꿨다. 26살이던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고 2년 후에 첫 시집을 냈다.

시인은 12년 전인 2007년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두고 쓸개가 터져 생사의 고비를 섰다. 105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주사약으로만 버텼다. 6개월간의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에게 사람들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20대 중반에 실연당했을 때와 50대 초반에 전문직(장학사)로 나갔다가 일선 학교로 복귀했을 때와 더불어 60대 중반에 겪은 역경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 시인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시 어법이 바뀌었다. 특히 시를 시처럼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헐거운 듯, 되는대로 썼다. 투병이후에 ‘멀리서 빈다’와 ‘사랑에 답함’, ‘묘비명’, ‘꽃들에게 안녕’ 같은 시들이 쓰여졌다. 그에게 시는 무엇이

고, 시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시는 세상에 보내는 시인의 러브레터예요. 끝없이 보내는 연애편지. 울렁이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이 시의 소재 ‘What’ (무엇을)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예쁘게,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방법론 ‘How’ (어떻게)입니다. 시인을 나는 ‘러브레터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달래 주고 도와주는 서비스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더 줄이면 ‘감정의 서비스맨’이 시인이다.”

◇한 해 동안 200여 차례 강연 가져=시인은 시를 방안에 앉아서 쓰지 않는다. 돌아다니면서 쓴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쓰고, 택시나 기차로 이동하면서 쓰는다. 스마트폰에 메모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종이조각에 급하게 적기도 한다. 그는 ‘시’에서 “우름을 인생에 적서/ 그 붓으로 꿈틀꿈틀/ 몇 마디 되지만 문장”이라고 했다.

“많이 움직이면 시가 많이 나와요. 앉아서 쓰는 시는 정태적(靜態的)·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고, 움직이면서 쓰는 시는 동태적(動態的)이예요. 움직이면서 쓰는 시의 배경이나 시속에 움직임이 들어가요. 내가 시를 많이 쓰는 것은 물이 많이 고이니까 많이 떠내는 거예요.”

시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해 강연만 200여 차례에 이른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찾는다. 주제를 묻지 않고, 거리를 묻지 않고, 강연료를 묻지 않는다. 그의 시를 읽는 학교현장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거친 언어가 줄어드는 등 자그마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시인은 내년에 등단 50주년을 맞는다. 시인은 ‘나’를 ‘시’를 쓰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애 같은 마음’과 ‘호기심’이라고 강조한다.

“호기심은 천진한 마음이고, 새롭게 보는 마음이고, 놀라게 보는 마음이에요. 천진하고, 새롭고, 놀라고 그렇게 시를 쓰면 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공주=글·사진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명품구두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현대 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총연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